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설명이 괄호 안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쓰여진 이스라엘 역사의 종합 본 같은 성경입니다. 역대상은 5장에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유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고 유다에게서는 주권자가 났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이 두 사람, 요셉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는 앞 뒤 문맥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유다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8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38장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유다와 관련된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하기 힘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옳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룯기에 보면 다말은 유다 지파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엘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게 하여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난이 아버지 유다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에는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유다는 다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셀라도 잘못되어서 죽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말이 묘책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함으로써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들의 쌍둥이 아들들인 베레스와 세라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서 진정한 주권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지만, 요셉도 야곱 못지않게 성경 인물들 가운데 오해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요셉은 철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고 고자질이나 하며 형들을 궁지에 빠뜨리는 철없는 아들, 채색 옷이나 입고 다니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형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눈치 없는 아들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시각이 인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상대적인 도덕가치로 성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세의 소년이었지만 형들과 함께 양들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집에서 한가롭게 놀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본을 이루는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도록 알려드렸습니다. 17세 소년이 물리적으로 여러 명의 형들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더 큰 범죄로 자라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셉의 성실한 모습입니다. 죄를 보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이며, 더 큰 죄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갔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그의 주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다 위탁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그에게 모든 죄수를 맡기고 그 제반 사무를 맡겼습니다. 이 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곡식 단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꿈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형들도 이 꿈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가감 없이 형들에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꿈은 곧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렇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이 전한 꿈의 내용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꾸짖으셨지만 그래도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렵지 않게 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알리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날마다 요구하였지만 요셉은 옷을 벗어 두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바에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큰 어려움이 찾아 왔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씀 드리고 자신이 꿈 2번의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가기 전에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져서 살해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손길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점점 더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인생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이 요셉이 형통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곳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 인생에는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순간이 결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